36과 도피성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릴 뻔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요 잠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쾌락도 아픔도 고통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나갈 세상에서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것, 지나가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들을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않으면 저희가 가야될 이 길에서 이탈하고 또한 힘들고 지쳐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받은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과 친절로 보살필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고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46편.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서 읽는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 한 낱말낱말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들 땅이 변하는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지진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통째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절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장면은

그런데,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든 있을 수 없는 일.

결코 내가 감당할수 없는 그 일에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바로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피난처. 자기 자신의 영혼의 피난처라면, 그 어떤 세상 물결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서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한절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 25장 4절, 5절 , 역시 이 말씀도 시편 말씀과 함께 항상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외인의 훤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따금씩 미국의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영상을 볼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토네이도 이렇게 보면은, 회오리 쳐가는 그 폭풍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위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때에도 오직 주님은 나의 보장, 나의 피난처, 나의 성곽, 나의 성벽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있을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이유 때문에 이 모든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사노라면, 힘든일을 만나게 됩니다.

안만났으면 좋았을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 안만났으면 좋을뻔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우리의 피난처. 나의 환난날의 도움, 바로 그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치고 자꾸 힘들때가 있습니다. 자꾸 피곤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다.

우리의 휴식처 ,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환난날에 만날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피난처가 도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주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의 있는 그대로 , 모습그대로. 그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휴식처,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 다시는 못일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 제 35과 도피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속에 도피성 바로,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보다도 더 얼마나, 더 위대한 위대한 도피성인지 오늘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13절입니다.

12절, 13절 구약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처음말씀 하셨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예. 처음으로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동일 보복법. 동일하게 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였을때, 고의적인 살인을 고살자, 살인자를 고살자

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때는 고살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사고사, 원한이 없고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때 그릇 살인한자, 오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살자와 고살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릇 살인한 자는 보복이 또한 보복을 또 낳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살인을 행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을 죽일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을때, 그릇, 실수로 사고사가 났을 때는 그 사고를 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복과 보복, 그 보복에 이은 또다른 보복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인데, 기계적인 보복 살인 사건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잃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것.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도피성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 이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복음. 우리는 이 도피성의 모습속에 복음의 그림자. 그리스도의대속의 그림자.

그리고 그속에 피하여 들어간 자는 어떤 자들이든지 살림을 받을수 있다는 그 복음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에는, 구약의 도피성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 유사점들도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교훈을 얻는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규례가 제시가 되는 대목이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가나안땅에 들어갔을때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성읍, 성들을 줄것이냐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바로 도피성, 여섯성읍을 구별해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총 48 성읍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여섯성읍은 바로 도피성으로 그 규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내가 위하여'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할 성읍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이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저는 그릇 살인한 잡니다,라고 도피성에 피한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심판이 있어요, 도피성 제도에는 심판이 없는게 아니예요 .

판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죄이냐, 정말로 무죄냐, 이게 고의로 살인한 것이냐 아니면 그릇 살인한 것이냐 이것을 재판 받아서 판결하기 전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릇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해 놓고 그릇 살인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했다가, 그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하나님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예요

지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그리고 우거하는 어떤 자일지라도 이 도피성 제도의 도피성 속으로 피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도피성에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16절에 보면, 이 고살자들이 나와요.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들. 이런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고의로 살인했을 때에는 결코 도피성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 그리스도라는 도피성과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 구약의 도피성 보다도 더 위대하냐, 이것을 방금 이런 대목에서도 확인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심판이 없어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그릇 살인했던 고의적으로 살인했던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코 심판과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의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다른 점이예요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요,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안에,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앞에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무죄를 가리는 심판, 판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을 고살자로 취급해 버리시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릇 살인한 자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릇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미움없이, 원한없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의로 지은 죄인들이예요

고살자들이라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 고살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릇 살인한 자로 보아주시겠다는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는 실수로 그랬습니다, 고의로 그러지 않고 그냥 그릇, 그렇게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되버렸어요 라고 말할수 있는 죄가 몇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오살자로 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피할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할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피성 안에 숨어 들어서 심판 없이, 정죄없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 34절입니다.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34.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쌔

예 됬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영적 철부지 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어렸을때 혹시 부모님께 혼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께 아주 심하게 혼날 때 어머니께서 애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얘가 몰라서 그런거예요, 용서해줍시다

이런얘기 안들어 보셨습니까?

얘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이 꼭 그말씀 아닙니까. 얘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모른겁니다, 용서해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얘들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릇 살인잡니다. 라고 인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대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나 죄를 없앨수 있는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릇 살인한 자로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에 대해 손은 에서로다 (창세기 27장에 나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넘어가는 날이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있는거 안다만은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야곱이 무엇입니까, 교활한자 , 간사한자, 발뒷꿈치 잡고 나온자가 아닙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다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 그 이름을 얻기 까지는 먼저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 살인한 자로 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나같은 죄인이, 나같은 고살자가 하나님앞에서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벗어났어요.

이보다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입니다. 25절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또한 이 방금 읽었던 대목도 참 소중한 규례입니다

대 제사장이 죽기 까지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자유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멸망이 없어요

이것이 구약의 도피성 보다 또 위대한 도피성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의 탁월한 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멸망치 않을 거라는 것

구약의 도피성은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을때 다시는 멸망이 없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도피성이십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도피성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삶의 안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더 나은 도피성 맞습니다.

도피성은 위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가 또 우리에게 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 19장 3절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리고 6절 ,
4절 5절에 그릇 살인한 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6절에 보면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7.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예 분명히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잖냐

그러므로 길을 닦아라. 그리고 금방금방 갈수 있도록 가까운곳에 성읍을 위치시키라는 겁니다.

참으로 세심한 배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 또 도피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섯 성읍이 나와있습니다.

20장 7절8절입니다

7.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예 게데스입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9.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섯성읍을 얘기했어요

이 여섯 성읍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은요 게 골 길 세 베 헤 이렇게 되요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 , 요단강 사해 이것을 구분으로 했을때 요단 동편으

로 세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세 성읍입니다.

지금 20장에 나와있는 여섯 성읍은 지금 바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놨어요

그것을 순서대로 보면 게 골 길 세 베 헤 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그림, 이스라엘 지형 사진으로 , 그림으로 보게되면 유심히 보면 그게 삼각형모양임을 알게되요

위에서부터 삼각형 그리고 다시 삼각형 삼각형으로 되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위치를 딱 보세요

어떤 곳에 사는 성읍에,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날 하루만에 도망갈수 있는 곳에 위치되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유대전승,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약 폭이 14m, 상당이 대로죠

그리고 반드시 곳곳마다 도피성을 가르키는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있어요

길을 잘 닦아야되고 그리고 해마다 표지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왜 표지판을 잘못 돌려버리거나 이랬으면 잘못된 길로 갈수 있잖아요.

길을 닦아야 되고 표지판을 정확하게 도피성으로 인도하도록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하룻길만에 도망갈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위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핑계될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죽을 핑계밖에 되지않는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들은 가기 쉽게 길을 닦에 놓았다는 것도 알아요

표지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결코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라는 도피성은 어느 누구도 알수 있을 만큼 다 알려진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죽임 당했을 때에 저는 멀어서, 저는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서 라는 그런 핑계로 결코 자기 자신을 핑계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하룻길에라도 달려갈수 있도록 되있어요

그룻 살인한 자로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때, 복수자의 그 무서운 복수의 손이 느껴졌을때 그럼 빨리 달려가야만 했어요

빨리 달려가면 피할수 있어요

그런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결코 도피성안에 들어갈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와 같습니다

우린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봅니다.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롯의 아내들을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전히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마음을 가지고 , 마음을 두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인생들을 만나요

그들은 결코 핑계될수 없을 겁니다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가까운곳, 바로 그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어느 누구가 핑계될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도피성을 찾고자하는 의지가 없었고,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앞에 가장 큰 죄로 남게될 거예요

이 도피성에 찾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4절

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예 도피성에 들어갈려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도피성의 성읍 장로들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일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고해야 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고는 도피성에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리하는 시간에 갑자기 두 사람의 군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였다하고, 모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교회안에 살고 부모님도 계속해서 교회안에 있었고, 자기도 뭐 미션스쿨 다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 거예요

다 알아요. 복음 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게 있어요. 정말 자기 죄를 몰라요.

한번도 자기 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냥 알아요

여러분 죄의 자각이 없는 구원은 문제가 있을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침례도 벌써 너뎃번, 목욕인줄 알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때마다 참 진지하게 들어가요, 들어갈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 또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참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 못느끼십니까

다 알고, 다 말을 하고, 다 잘 쓰기도 하는데 정작 , 정작 부모님은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집에서 하는 모습이 그게 아니라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경험하는 죄라는 것의 자각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자기 죄의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까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것 같아요

그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쫌 한계가 있는 죄들이예요

성인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수많은 방어를 가지고 자기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저히 허물어졌을때 결국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줄 알아요

내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바로 죄의 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 할줄 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죄가 기어 나옵니까

정말 더럽도록.

정말 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죄는 나올까.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두려움을 느껴요

이 죄의 자각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한잔 주는데 거기 두세요, 목마를때 먹을께요

생명수, 생수가 되지 못하고, 거기 두세요. 저 목마를때 먹을께요

이렇게 그 물이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예요

죄의 고백이 없는 구원이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질거라는거 아시죠

여러분 구원, 거듭남 얼마나 유행이되고 있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구원이란 말 많이써서 우리가 구원파였잖아요

구원이란 말이 너무나 생소했던 말이잖아요

지금은 다 구원써요. 구원 받았데요. 그런데 거듭나지는 못했데요

도대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제 또 거듭남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요 , 아시죠

시중에 나와요, 그렇게. 서점 가보십시오

일반 기독교 서점에 보면 , 거듭남, 거듭나야함이라 이런게 많이 나와요

거듭남에 대한 지식적인, 교리적 지식들을 알아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적은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거듭 태어난다 라는 태어남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되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지식이 아니예요 실제입니다

태어난 것은 분명한 체험이요 경험이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어났다는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을 간직한 사람들이예요

바로 그것에 비유해서 거듭남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요

거듭남은 역사적 사실이예요, 거듭남은 그저 지식이 아니예요 , 체험이예요

실제 거듭나는 거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할수 가 있다는 거에요

이건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있는 구원과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에요

우리는 이 거듭남 이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앞에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사실앞에 죄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되는 일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였어요

이건 중요한 거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요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열어주게 할겁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 군데 상호보완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있어요

제가 오늘 찾았던 성경성경들을 찾아서 별도로 이렇게 읽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게되면,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요

그걸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해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됬습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였어요

피의 보복.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살리기 위한 대책이였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오직 죽지않고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 찾아들어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무는것 밖에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결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었어요

그래야만 그는 삶을 얻을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도피성을 만나게 되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한 안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피성 속에 피하여 들어간 잡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같을찌라도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도피성 그 성벽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안에서 보호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멸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잠시예요

요즘 제가 몇일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것밖에 없어요

육차까지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밖에 없어요,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여름 성경학교, 이거 지나간다. 지나간다.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계속 가득차 있어요

맛있는거 먹는거 지나간다.

이 재밌는거 이 웃음 지나간다.

이거 지나간다.

지나가지 없는거 없다. 이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지나간다

그러므로 지나갈 인생으로, 지나가지 않는것 추구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자꾸 그생각이 들어요

영원한것, 지나가지않는것 그거 하나 간직하고 있다, 그거 하나 내 소망이다

그 지나가지 않는 세상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점점 재미가 없어요, 진짜 세상이.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가.

지나갔잖아요, 벌써 지나가. 지나갔잖아요 이 지나간 손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수 있습니까, 지나갔어요

오늘도 지나갈꺼에요 지나갈껍니다

바로 이 지나가는 세상, 지나갈 인생으로 살면서,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안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건 행복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인생속에서 지나가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 이보다 더 저를 소중하게 저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생활속에서도 계속해서 도피성 속으로 찾아들어가야 되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또한 영원한 도피성 속으로 또한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피성 속으로 들어갔으며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피성 속에 안전, 평안을 맛봐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안전은 도피성 속으로 실제 우리몸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속에 도피성 속으로 항상 피하고 계십니까?

그거 역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나 걱정과 수많은 일들 때문에 혹시나 흔들리고 두려움에 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피성 속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속에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속에서도 우리의 도피성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찾아들어가야 할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살고 싶은 자는 그 도피성을 찾아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바로 그 도피성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야 될겁니다

또한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 되심. 그것을 알게 해야 될겁니다

인생은 결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 우리는 우리아이들에게 도피성 자체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 ,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피할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우리는 알게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는 세 번째 영원한 안전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도피성 이제도, 이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단다.

우리는 끄떡없단다.

이 도피성 성벽안에는 그 어떤 폭풍도 ,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밀려들어올수 없단다.

그것을 영원한 안전이라고 한단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겁니다

도피성에 대한 더 많은 묵상을 하시고, 우리의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이 영원한 도피성,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있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갈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피성을 사모하고 또한 이렇게 살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속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만날때마다 슬픔과 눈물을 만날때마다 산과 골짜기를 만날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성, 내 삶속에 도피성을 생각하며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갈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하면 못하는 그 모습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그 모습 대로 이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로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섬길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